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imary Triad Experience on Self-Esteem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엄혜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정혜정

Dept. of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Eom, Hyejeong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e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 of the primary triad experiences on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The primary triad experiences were composed of the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 of couple relationship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cluding family rule, triangulation and communication.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included such subscales as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global satisfaction, affection communication and time togethe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82 college students b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differenti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all components of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at family rule was negatively associated only with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Triangulation was negatively related with most components of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hile parent-child communic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same variables.

Path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 of most variables of primary triad experiences on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ddition, variables of the primary triad experience had direct influences on most components of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Self-esteem was found to be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fluencing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pre-marital education and counseling.

주제어(Key Words): 원가족 삼인군경험(primary triad experi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이성관계만족도(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1. 서론

대학생은 발달주기 상 청년후기에 속하며 이 시기의 주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발달로 인한 친밀감의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물리적인 독립이라 할 수 있다(Erikson, 1963). Carter와 McGoldrick(1980)은 이 시기를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어떤 가족에도 소속되지 않은 젊은 성인의 단계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과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가족 사이의 중간을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로 봄으로써, 이 시기의 원가족 분화 및 건강한 이성관계의 발달과업 성취여부는 이후 가족생활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김유숙, 2002).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가 34.6%, 친구 33.3%, 이성친구 16.8%로 대답하였다. 특히 이성교제중인 대학생은 이성친구가 39.8%, 부모 30.4%, 친구 15.2%로 응답하여 원가족의 부모와 이성친구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김나리, 2002). 이는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문제와 가족문제, 이성교제 관련 문제를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설기문, 1993), 이성관계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남재수, 윤정륜, 1974) 두 사람의 상이한 다툼을 잘 해결하지 못하여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승희, 1993). 또한 현실적으로 청년기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인 상태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김순기, 2001), 부모와 밀착된 역기능 가족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정서적 유대결여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로 부터 건전한 동료 및 이성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방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문자, 2001). 따라서 대학생의 이성관계는 원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의 교제기간 동안 발달된 상호작용 패턴은 이후 개인의 결혼관계 및 가족생활의 맥락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원가족 경험과 이성관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은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차정화, 전영주, 2002;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Eshel, Sharabany, & Friedman, 1988),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김주연, 2002; 박선미, 2003). 그런데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보면 현재 핵가족 내에서 부모가 보이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유형은 부모 자신의 원가족 경험의 영향이며 원가족 체계 및 가족구성원은 부분과 부분이 상호 영향을 준

다. 또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부모 자신이 원가족 분화가 높을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현재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고(전연진, 정문자, 2003), 조부모 및 외조부의 분화는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혼자녀 부부관계 분화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남순현, 한성열, 2002). 또한 부모의 원가족 경험은 성인기 친밀한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방법과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이후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이에 따라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원가족 분화 경험의 영향이며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타인인 이성교제 미혼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Satir(1988)는 부모-자녀 세 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원가족 삼인군이라 하였고, 모든 가족의 체계는 두 사람의(dyad) 상호작용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체계의 성공과 실패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여(Jacobs, 1991), 부부관계가 서로 자신감이 없고 소외된 것에 민감하면,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자녀가 편들어주기를 기대하거나, 의사전달 해주기를 기대하여 자녀가 삼각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정문자, 2003). 또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기능적이면, 일직적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준거에 맹종하지 않는 융통성 있는 가족규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Jacobs, 1991). 따라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부모-자녀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과거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현재 개인의 자아존중감으로 내면화되고, 이는 배우자 선택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Satir, 1988; Satir, 1993).

이를 뒷받침할 연구들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낮을수록 부모-자녀의 삼각화가 형성되고(Bartle & Anderson, 1991),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며(Avnir & Shor, 1998),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avies & Cumming,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en, 1990).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는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Benson *et al*, 19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권보연, 2000), 원가족 규칙은 이성관계와 상관이 있었으며(Larson,

Taggart-Reedy, & Wilson, 2001),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선미, 2003; Eshel, Sharabany, & Friedman, 1988). 따라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부모-자녀관계는 각각 자녀의 이성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원가족의 부부관계(김상빈, 1994; 김소향, 1994)와 부모-자녀관계(원영희, 1990)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변은주, 1996, 재인용). 따라서 어릴 적 원가족 경험 변인은 현재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각각의 체계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이 변인들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결국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Satir의 모델을 전반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으나, Bowen의 가족분화 개념을 원가족 경험 변인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Bowen과 Satir 이론을 통합한 가족체계론적 관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어릴적 원가족 삼인군 경험 변인(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및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삼각화)이 현재의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한 가족생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및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

대학생의 이성관계는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되며,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의 한 유형이다(Sippola, 1999). 이성교제는 두 사람(dyad)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여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

을 배우는 것이다(김예정, 김득성, 1999). 이성관계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자아성장 및 성숙한 인격형성이 되는 긍정적인 면과 또 다른 측면의 부정적인 면을 함께 경험한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96). 이성관계에서의 만족이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홍대식, 1998), 대학생 이성관계의 만족된 상호작용은 인간의 발달과업 및 미래사회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이성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미혼 남녀의 이성상대 선택준거(홍대식, 1996), 결혼관 조사(김정옥, 김형섭, 1993; 성민선, 1990) 등의 연구와 혼전 순결이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김혜선, 김영희, 1983;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박민자, 1995),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교제 커플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차정화, 전영주, 2002) 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팅 폭력에 관한 연구(정혜정, 2003), 데이팅 폭력(김예정, 김득성, 1993; 김용미, 1996a; 김용미, 1996b) 및 갈등대처에 관한 연구(김나리, 2002; 이수희, 2004)가 이루어졌다. 외국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합리적인 행동수준에 관한 연구(Hover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원가족 관계와 이성교제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졌다(Benson *et al*, 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 관련 연구로는 부모-자녀의 애착과 관련된 이성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김주연, 2002; 이복동, 2000),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이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선미, 2003), 데이트 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 연구(홍대식, 2000)가 있고 교제중인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을 위해 성, 의사소통 내용을 다루어 집단상담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김은정, 1997; 김은지, 1996).

한편, 성별과 교제기간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공유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박선미, 2003), 성별에 따라 공유시간과 전반적 만족이 차이가 있었다(이복동, 2000). 또한 교제기간이 길어지면 상대에게 애착이 더 형성되어 긍정적 이성관계가 형성되었으며(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 교제기간에 따라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다(박선미, 2003; 이복동, 2000).

이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대학생의 이성관계 관련 연구는 배우자 선택 및 성, 가치관, 데이팅 폭력, 갈등대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성관계 만족 관련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의 애착, 부부관계, 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성별, 교제기간 변인이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이다(Hoverstadt *et al.*, 1985). Satir(1988)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왜곡된 지각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 경험을 변형하는 원가족 삼인군 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원가족 삼인군인 부모, 자녀는 두 사람(dyad)이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로써 부부체계와 부모-자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Satir는 원가족 삼인군에서 부부관계가 신뢰롭고 건강하면 충족되지 못한 기대를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편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자녀와의 삼각화 경험이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나 경직된 가족규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Jacobs, 1991). 즉 나이 어린 자녀는 생존을 위해 부모의 한 사람과 융합하는 삼각화를 경험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인식이나 행동 규범인 가족규칙을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송성자, 정문자, 1994). 또한 부모와 의사소통에서도 기능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은 나와 타인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이 없고 타인과 상황을 중시하는 회유형, 타인이 없고 자신과 상황을 중시하는 비난형, 자신과 타인이 없고 상황만 있는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과 상황이 모두 없는 산만형이 있다(정문자, 2003). 따라서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부모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Andreson & Sabatelli, 1992; Lim & Jennings, 1996)와 부모-자녀관계 경험의 삼각화, 의사소통, 가족규칙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으로 내면화되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거나 이들 이성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Satir, 1988; Satir & Baldwin, 1983). 또한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원가족 체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하였고,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부모-자녀 체계의 변인을 거쳐 현재 의미 있는 타인 및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이에 따라 개인의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인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 가족규칙, 의사소통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부모-자녀관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낮을수록 분화수준이 유사하거나 더 낮은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부부관계의 정서적 과정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이 밝혀졌다(Bartle & Anderson, 1991). 또한 부부의 분화수준은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며

(Avnir & Shor, 1998), 결혼갈등이 심한 어머니는 자녀와 관계에서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인 훈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Kelly, 2000), 부부관계의 불화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t & Ainsle, 1998).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이성관계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삼각화를 형성하고 있거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를 받은 미혼자녀는 이성친구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son *et al.*, 1993).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경험에서 부모와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 성향이 높은 반면, 개방적인 대화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가 높았고(권보연, 2000)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청년후기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경, 1993, 재인용). 또한 역기능적 원가족 규칙을 경험한 자녀일수록 데이트 만족에 부적인 상관이 있었고, 데이트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Larson *et al.*, 2001).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이성관계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수준은 기혼자녀의 이성관계 친밀감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남순현, 2000), 긍정적 부부관계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과 이성교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hel, Sharabany, & Friedman, 1988).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 갈등은 이성관계의 전반적 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고, 부모의 부부관계인 심리적 조화는 정서적 의사소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미, 2003).

따라서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부 관계분화와 부모-자녀관계는 각각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3.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81). Satir(1988; 1993)는 원가족 삼인군 경험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하였고,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가족체계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원가족의 부부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며(김소향, 1994), 부부갈등이 격렬할수록 자녀는 슬픔을 느끼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

김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Sternberg, 1993).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자녀는 심리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Anderson & Sabatelli, 1992),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자녀의 삼각화가 형성되면 자녀는 자율적이지 못하며 한 부모에게 거부당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옥경희, 199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이혜숙, 1999) 개방형 의사소통의 경우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으며, 그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의 경우는 자아개념수준이 낮았다(박소춘, 1999). 가족 내에서 가족규칙들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가족체계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학습된다고 하였으며(Rosenberg, 1981) 역기능적 의사소통, 융통성 없는 가족규칙, 실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는 가족체계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학습된다고 하였다(Satir, 1988). 또한 학년, 성별, 이성교제기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한만열, 2003; Samet & Kelly, 1987),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Klemer, 1971) 이성교제 기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한만열, 2003).

따라서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원가족 삼인군 경험 변인인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부모-자녀관계는 각각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학년, 성별, 이성교제 기간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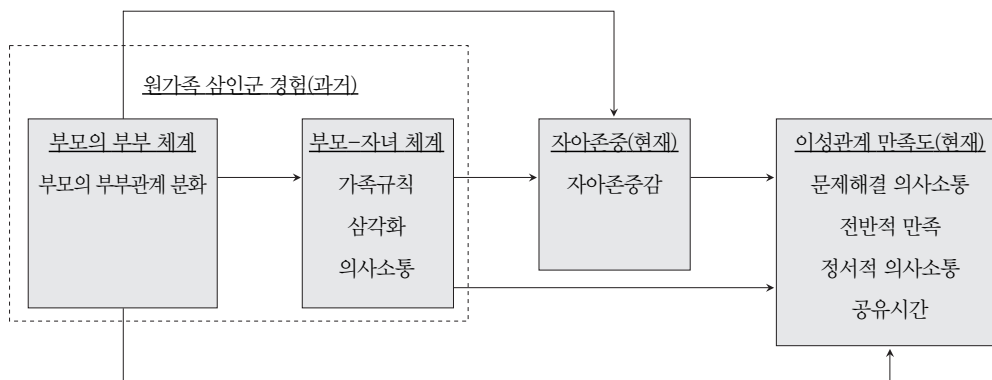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을 보면, 자아존

중감은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보일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였다(변은주, 1996,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일단 낭만적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 자체에 기대를 가지게 되며, 사교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변은주, 1996, 재인용). 한편, Maslow(1970)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독립적이고 상대에게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의 모든 연구를 종합하면 원가족 삼인군 경험 변인인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부모-자녀관계는 각각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여기에 자아존중감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 모든 원가족 경험 변인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과거 어린 시절 원가족 삼인군 경험인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부모-자녀관계 경험이 현재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 직접적 영향, 간접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및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삼각화), 자아존중감, 이성관계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림 1>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모형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및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삼각화)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및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삼각화)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 자료는 이성교제 기간이 2개월 이상 된 지속적 교제(Stets & Pirog-Good, 1987)를 하는 남, 여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전 이성교제중인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문항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 이해되는 문항으로 지적된 것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절차를 거친 후 200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대전시에 위치한 3개 대학, 전주시에 위치한 2개 대학의 학생들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적 경험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밀봉된 봉투에 넣어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표집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410부이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 382부가 사용되었다. 성별의 구성은 남학생이 136명(35.6%)이고 여학생이 246명(64.4%)이었고, 평균연령은 21.6세(SD=2.13)이고, 평균 교제기간은 16.4개월(SD=15.83)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이 39명(10%), 2학년이 95명(24.9%), 3학년이 123명(32.2%), 4학년이 124명(32.5%)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Anderson & Sabat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를 전영주(1996, 1998)가 번안하였고 그중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유형이 어떠한지를 지각한 측면이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예. 아버지는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예. 어머니는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를 내어,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하여 사용하였

다(Chun, 1996; 전영주, 1998; Anderson & Sabatelli, 1992). 본 척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한 것은 두 사람(Dyad)간의 분화수준과 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에 30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점수에 30점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이 각각 50점과 10점을 받았을 때, 각 총점을 더하면 A와 B는 모두 60점의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하게 되면 A의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점수는 90점이고, B의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점수는 50점으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총 11개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8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아 원가족 경험이 기능적인 것으로 보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lpha)는 .90이다.

2) 부모-자녀 관계의 삼각화

Bray, Williamson, & Malone(1984)의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PAFS-Q),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척도, Chun(1996)의 부모-자녀척도(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를 참고하여 전연진(2002)가 재구성한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 가운데 삼각화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학생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의 긴장이 발생하면 자녀를 끌어들이는 경험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것이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분석결과 부-자, 모-자 삼각화의 상관계수가 .82를 넘어 부-자, 모-자 삼각화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삼각화가 높음으로써 원가족 경험이 역기능적인 것으로 보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다.

3)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

가족규칙은 이종원(2002)의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가 자녀에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범이 어떠한지를 나타냈다. 총 23문항으로써 생활규칙 5문항, 성과 성역할규칙 7문항, 위계규칙 6문항, 감정규칙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런 적이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러했다(5점)'까지 빈도의 개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와 모에 대한 가족규칙의 경험이 각각 어떠한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부-자 가족규칙, 모-자 가족규칙의 상관계수가 .89를 넘어 부-자, 모-자 가족규칙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규칙이 경직되어 원가족 경험이 역기능적인 것으로 보며 내적합치도 계수는 .85이다.

4)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유희정(1999)이 사용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문항과 박민자(200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으로 구분하여 각 8문항씩으로 구성되었고, 대학생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와 의사소통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낸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서 부모와 모에 대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각각 어떠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부-자, 모-자 상관관계수가 .82를 넘어 부-자, 모-자 의사소통을 합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삭제한 후 본 연구에서는 38문항이 사용되었다.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을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 의사소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며 내적합치도 계수는 .85이다.

5)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로 어주경(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현재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며 내적 합치도는 .84이다

6) 이성관계 만족도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과 이복동(2000)이 부분 수정한 41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에 상이한 내용이 중복 포함되어(예, 정서적 의사소통에 공유시간 갈등 포함 등) 재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요인은 전반적 불만족으로 13문항, 2요인은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10문항, 3요인은 공유시간 갈등으로 5문항, 4요인은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6문항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서적 의사소통에 포함되었던 공유시간 갈등, 공유시간 갈등에 포함되었던 전반적 불만족 문항들이 하위요인인 3요인, 1요인으로 각각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34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척도의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된 척도를,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4개 하위척도 점수를 역코딩하여 전반적 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재명명하여 불만족도가 아닌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전반적 만족은 이성관계에서 행복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포함하였고,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이성파트너와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여부,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공유시간은 파트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

가 활동이 어떤지를 포함하였고, 정서적 의사소통은 이성파트너의 애정이나 지지,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이해와 공감 정도를 포함하였다.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내적신뢰도는 각 .93, .88, .77, .69이다.

7)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만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는 성별, 학년, 교제기간을 이성관계 만족도에는 성별과 교제기간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IV. 연구결과

1. 통제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1) 성별, 학년, 교제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이성교제중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3학년이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1학년이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반면 중위수를 기준으로 한 교제기간의 차이분석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성별, 학년 및 교제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변 인		자 아 존 중 감	
		M (SD)	t 값/F 값
성 별	남 성	3.11 (.41)	4.95***
	여 성	2.88 (.42)	
학 년	1학년	2.77 (.47)	2.92**
	2학년	2.98 (.44)	
	3학년	3.00 (.44)	
	4학년	2.97 (.40)	
교제기간	12개월 이하	2.96 (.44)	-.27
	12개월 이상	2.97 (.43)	

p<.01, *p<.001

2) 성별, 교제기간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의 차이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 전반적 만족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교제기간에 따라 문제해결 의사소통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제기간이 12개월 이상 일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높았다. 따라서 본

〈표 2〉 성별 및 교제기간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의 차이

변 인			이성관계 만족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 유 시 간	
			M (SD)	t 값	M (SD)	t 값	M (SD)	t 값	M (SD)	t 값
성 별	남 여	성 성	3.18 (.74)	.72	3.90 (.60)	2.25*	3.50 (.58)	-.77	3.57 (.65)	1.08
			3.12 (.75)		3.75 (.65)		3.55 (.58)		3.49 (.66)	
교제기간	12개월 이하	12개월 이상	3.00 (.70)	-4.05***	3.77 (.61)	-.83	3.50 (.58)	-1.20	3.51 (.66)	-.38
			3.30 (.76)		3.83 (.66)		3.57 (.58)		3.53 (.65)	

*p<.05, ***p<.001

〈표 3〉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변 인			원가족 삼인군 경험				자아 존중감	이성관계 만족도			
			부모의 부부 관계 분화	부모-자녀 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원가족 삼인군 경험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1.00								
	부모-자녀 관계	가족규칙	-.07	1.00							
		삼 각 화	-.36***	.16**	1.00						
		의사소통	.55***	-.28***	-.41***	1.00					
자 아 존 중 감			.28***	.00	-.16**	.32***	1.00				
이성관계 만족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16***	-.19***	-.21***	.25***	.28***	1.00			
	전반적 만족		.19***	-.03	-.17***	.16**	.36***	.48***	1.00		
	정서적 의사소통		.18***	-.05	-.12*	.14**	.26***	.46***	.64***	1.00	
	공유시간		.19***	-.03	-.07	.07	.26***	.30***	.63***	.55***	1.00
평 균			12.18	3.01	2.10	3.57	2.96	3.14	3.80	3.53	3.52
표 준 편 차			3.82	.46	.65	.33	.43	.74	.63	.58	.65

*p<.05, **p<.01, ***p<.001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교제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대학생의 원가족 삼인군 경험, 자아존중감,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의 관련성

1)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삼각화는 부적상관을, 의사소통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부모-자녀 관계의 삼각화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2)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이성관계 만족의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

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원가족 삼인군 경험인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변인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부적상관을 보였고, 삼각화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은 높았다.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이 낮을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높아지며 부모-자녀 관계의 삼각화가 낮을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변인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만 상관계수의 대부분이 0.2이하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의 영향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이 계수가 1.99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단계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인 성별, 학년을 선정하였고 성별은 가변수화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들 통제 변인들에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를 첨가시켰으며 셋째 단계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인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을 첨가시켜 그 결과와 같다.

우선 자아존중감은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 변인은 성별($\beta=.25, p<.001$)과 학년($\beta=.10, p<.05$)이었으며 설명력은 7%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를 첨가하여 총변인의 설명력이 13%로 증가하였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25, p<.001$), 성별($\beta=.20, p<.001$), 학년($\beta=.11, p<.05$)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투입되었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의사소통($\beta=.25, p<.001$), 성별($\beta=.19, p<.001$),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12, p<.05$), 학년($\beta=.10, p<.05$) 이었고 총변인의 설명력은 17%였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종합해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의 기능적 의사소통, 성별,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학년 순이었다. 즉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의 영향력

변 인		자 아 존 중 감		
		β	β	β
통제 변인	성 별 ^a	.25***	.20***	.19***
	학 년	.10*	.11*	.10*
원가족 삼인군 경험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25***	.12*
	부모-자녀 관계	가족규칙		.06
		삼 각 화		.01
		의사소통		.25***
F 값		14.21***	19.15***	12.97***
R ²		.07	.13	.17
R ² -Change		.07	.06	.04
Durbin-Watson		1.99		

^a. 성별 : 여자 0, 남자 1

* $p<.05$, ** $p<.01$, *** $p<.001$

4.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의 영향력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계수가 1.71~2.06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였고 성별은 가변수 처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변인에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를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을 투입하는 과정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1%였고 유의한 영향변인은 교제기간($\beta=-.11, p<.05$)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력은 4%였고 유의한 영향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15, p<.01$), 교제기간($\beta=-.10, p<.05$)이었다. 세 번째 단계의 설명력은 10%였고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beta=.17, p<.01$), 가족규칙($\beta=-.12, p<.05$), 삼각화($\beta=-.11, p<.05$), 교제기간($\beta=-.10, p<.05$)이 영향변인이었다. 즉 대학생은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가족규칙, 삼각화가 낮을수록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이 높아졌다.

전반적 만족에서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2%였고 성별($\beta=.12, p<.05$)이 유의한 영향변인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력이 5%로 증가하였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17, p<.001$)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력이 6%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영향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적 의사소통은 첫 번째 단계의 설명력이 0%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력이 4%로 증가하였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20, p<.001$)가 유의한 영향변인이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력이 5%였으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16, p<.01$)가 영향변인이었다. 즉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정서적 의사소통이 높아졌다.

공유시간 만족도는 첫 번째 단계의 설명력이 1%였고 교제기간($\beta=.11, p<.05$)이 유의한 영향변인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설명력이 5%였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19, p<.001$), 교제기간($\beta=.12, p<.05$)이 유의한 영향변인이었다. 세 번째 단계의 설명력은 5%였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22, p<.001$), 교제기간($\beta=.12, p<.05$)이 영향변인이었다. 즉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공유시간이 높아졌다.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자녀관계 경험인 의사소통이었으며, 정서적 의

〈표 5〉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의 영향력

변인		이성관계 만족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통계 변인	성별 ^a	.03	.00	.00	.12*	.09	.07	-.04	-.08	-.08	.06	.03	.03	
	교제기간	-.11*	-.10*	-.10*	.05	.06	.06	.02	.03	.03	.11*	.12*	.12*	
원가족 삼인군 경험	부모- 자녀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15**	.02		.17***	.12		.20***	.16**		.19***	.22***
		가족규칙			-.12*			.00			-.02			-.04
		삼각화			-.11*			-.10			-.06			-.02
		의사소통			.17**			.05			.03			-.07
F 값		2.64	4.79**	7.04***	3.00*	5.92***	3.76***	.35	5.27***	2.97**	2.74	6.58***	3.53**	
R ²		.01	.04	.10	.02	.05	.06	.00	.04	.05	.01	.05	.05	
R ² -Change		.01	.02	.07	.02	.03	.01	.00	.04	.01	.01	.04	.00	
Durbin-Watson		1.83			1.94			2.02			2.12			

^a. 성별: 여자 0, 남자 1
*p<.05, **p<.01, ***p<.001

사소통과 공유시간에는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5.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앞서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은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의 직접적 효과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통한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1) 경로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중다회귀분석과 동일하게 경로분석에서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였다. 독립변인들의 상관계수

값이 .60을 넘지 않았고, 각 변인의 VIF값이 1.11~1.74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자기 회귀 현상의 부재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한 Durbin-Watson 계수가 1.69~2.11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는 자아존중감($\beta=.23, p<.001$),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beta=-.14, p<.01$), 삼각화($\beta=-.11, 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 만족에는 자아존중감($\beta=.33, p<.001$),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beta=-.10, p<.05$)가 정서적 의사소통에는 자아존중감($\beta=.23,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공유시간에는 자아존중감($\beta=.25, p<.001$), 부모의 부부 관계분화($\beta=.18, p<.01$), 부모-자녀 관

〈표 6〉 경로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성관계 만족도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β	β	β	β	β	β	β	β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07	-.36***	.55***	.14*	-.01	.07	.12	.18**
부모-자녀관계	가족규칙				.08	-.14**	-.02	-.04	-.05
	삼각화				-.02	-.11*	-.10*	-.04	-.01
	의사소통				.26***	.10	-.04	-.03	-.13*
	자아존중감					.23***	.33***	.23***	.25***
	상수	3.12	2.85	3.00	1.31	2.14	2.75	2.82	3.21
	R ²	.01	.13	.30	.13	.14	.14	.08	.09
	F-value	2.01	56.22***	165.12***	13.70***	12.06***	12.66***	6.96***	7.50***
	Durbin-Watson	1.74	1.86	1.96	1.97	1.69	2.07	1.99	2.11

*p<.05, **p<.01, ***p<.001

계의 의사소통($\beta = -.13,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각 이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다. 또한 5개의 독립변인들이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 시간을 설명하는 비율은 각 14%, 14%, 8%, 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beta = .26, p < .001$),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beta = .14, p < .05$)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4개의 독립변인들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beta = .55, p < .001$), 삼각화($\beta = -.36, p < .001$)에는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부모-자녀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았고 삼각화는 낮았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비율은 30%이며 삼각화를 설명하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2)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직·간접적 효과는 <표 7>과 같으며,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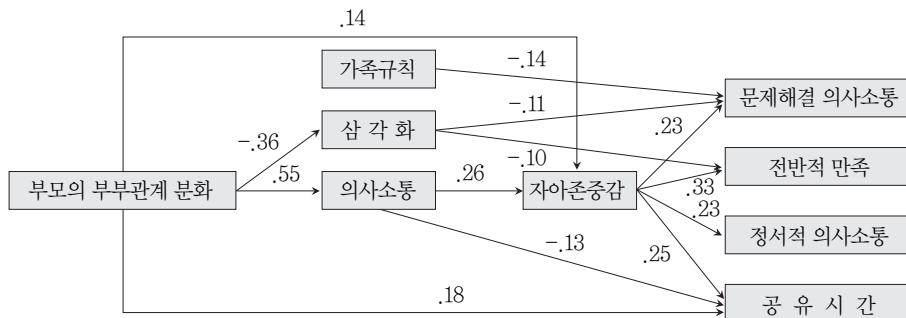
먼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효과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23, p < .001$)이었다. 부모의 부부관계분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를 통해,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의 가족규칙과 삼각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전반적 만족에 대한 전체효과 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33, p < .001$)이었다. 부모의 부부관계분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를 통해,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전체 효과분석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자아존중감($\beta = .23, p < .001$)이었다. 부모의 부부관계분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

<표 7>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전체 인과효과

		부모-자녀 관계						자아존중감	이성관계 만족도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문제해결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원가족 삼인군 경험	부부관계 분화			.00	-.36	-.36	.55	.55	.14	.15	.29	-.01	.16	.15	.07	.11	.18	.12	.06	.18	.18	.00	.18	
	부모-자녀관계	가족규칙	-	-	-	-	-	-	-	.08		.08	-.14	.02	-.12	-.02	.03	.01	-.04	.02	-.02	-.05	.02	-.03
		삼각화	-	-	-	-	-	-	-	-.02		-.02	-.11	.00	-.11	-.10	-.01	-.11	-.04	.00	-.04	-.01	.00	-.01
		의사소통	-	-	-	-	-	-	-	.26		.26	.10	.06	.16	-.04	.09	.05	-.03	.06	.03	-.13	.07	-.06
	자아존중감	-	-	-	-	-	-	-	-	-	-	.23		.23	.33		.33	.23		.23	.25		.25	



<그림 2>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모든 경로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향을 미쳤다. 즉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유시간에 대한 전체효과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25, p<.001$)이었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 중 공유시간에만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부부관계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이성관계 만족도의 공유시간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atir와 Bowen 이론을 통합한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토대로 원가족 삼인군경험(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통제변인은 성별과 학년이었고,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통제변인은 성별과 교제기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Klemer, 1971; 한만열, 2003)과 이성관계 만족도(이복동, 2000; 박선미, 2003)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은 가족 및 사회가 남학생들에게 보다 관대하고 허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고(Block & Robin, 1993), 이것은 가족 및 사회 환경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1학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고교 시절 억압된 입시 후에 대학 진학을 하여 자아정체감의 혼돈으로 나타난 결과(이차선, 1998)로 보여지며, 학년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형성 및 발달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변인인 전반적 만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적인 요인(Cancian, 1985)과 병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하위변인인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교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12개월 이하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교제기간이 길수록 상호간의 이해 폭이 넓어져서 상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파악하였는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부모-자녀관계의 가족규칙은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삼각화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에 부적상관을, 의사소통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의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이었으며, 정서적 의사소통과 공유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였다.

이 결과는 어린 시절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현재 이성관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Satir(1988)의 주장과 일치하며, 부모의 부부관계가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박선미(200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어린 시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상관이 있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의 초석이 되는 올바른 부부관계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경험은 현재의 이성관계 만족도와 부분적인 상관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 경험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Benson et al, 1993; Larson et al, 2001; 권보연, 2000)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Satir(1988)가 강조한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Satir의 5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세분하여 과거 어린시절 의사소통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원가족 삼인군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파악하였는데,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부모-자녀 관계의 삼각화는 부적상관을, 의사소통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원가족 삼인군의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자녀관계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성별,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 학년 순이었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기능적일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소향, 1994; Satir, 1988; Satir, 1993; Sterberg, 1993)와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와(Anderson & Sabatelli, 1992)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규칙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 Rosenberg(1981)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삼각화는 부적상관이 있었고,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행연구(박소춘, 1999; 이해숙, 1998; Satir, 1988)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의 기능적 의사소통 경험은 자녀의 현재 자아존중감에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미 있는 타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는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변은주, 1996, 재인용)와 일치하는 것이며,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가치 있게 느끼는 사람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만족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공유시간에만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 변인에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이성관계 만족도의 공유시간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

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각 하위변인에 자아존중감을 통해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 근거한 이론적 모형(그림 1)과 일치하는 결과(그림 2)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경험이 현재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의사소통 경험이 현재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내용으로는 가족체계를 근거한 원가족 경험을 다룰 수 있는 Satir의 원가족 삼인군 치료 모델과 가족 재구성 등의 치료적 개입(Satir, Banmen, Gerber, & Gomori, 1991)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기 및 파트너의 원가족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가족 분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의 대상을 표집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대전시에 국한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고, 교제중인 커플을 표집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혼전 이성교제 관계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원가족 삼인군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는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경험인 가족규칙, 삼각화, 의사소통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일방적 관계만을 측정한 척도로서 이후 양방향적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원가족 경험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못했다.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실제적인 현상이기 보다는 지각(perception)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로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적을 수도 있다(Wilcoxon & Hovestadt, 1985). 그러나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가족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전춘애, 1994, 재인용), 과거의 왜곡된 지각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성관계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 및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보연(2000).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나리(2001).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빈(1994). 가족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심리적인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예정, 김득성(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용미(1996a).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용미(1996b).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II. 이론검증과 유/무경험 집단의 비교. 원광대학교 논문집, 31(2), 1221-1223.
- 김유숙(2002).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은정(1997).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1996).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교제중인 미혼남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김형섭(1993). 강릉대 재학생들의 결혼관과 연애관에 관한 의식 조사. 강릉대 학생생활연구소, 30(2), 65-99.
- 김주연(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07-125.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남재수, 윤정륜(1974). 이성관에 대한 조사연구. 인동교육대학교 학생지도연구, 2, 3-31.
- 박민자(2004). 미술치료를 활용한 Satir 집단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존감과 의사소통향상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미(2003). 미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춘(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박민자(1995). 미혼 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2.
- 변은주(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기문(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현황과 방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 25-51.
- 성민선(1990). 한일 성심 여대생들의 직업과 결혼관 비교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회지, 30(2), 70-79.
- 송성자, 정문자(1994). 경험적 가족치료: Satir 이론과 기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육영희(199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 1-16.
- 원영희(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다른 이성관계 만족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희정(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행동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2004). 대학생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이성 파트너와의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숙(199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

- 존중감과 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 22-45.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2001). 연구와 임상에서 살펴 본 한국 가족문제와 관련된 변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9(2), 1-34.
-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차승희(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한만열(2003). 이성교제 상태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친구에 대한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81-111.
- 홍대식(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20(1), 77-89.
- Avnir, Y., & Shor, R. (1998). A systematic qualitative evaluation of levels of differentiation in families with children at risk.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9(5), 504-513.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artle, S. E., & Anderson, S.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ray, J. H., Willimason, D. S., & Malone,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manual. Unpublished document.
- Block, J., & Robins, R. W. (1993). A longitudinal study of consistency and change in self-esteem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4, 909-923.
- Cancian, F. M. (1985). Love and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kolnick, A. S., & Skolinick, J. H. (Ed.).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Carter, E. A.,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Chun, Y. J. (1996). Intergenerational dynamics in three-generation families: Adult's emotional ties an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shel, Y., Sharabany, R., & Friedman, U. (1998). Friends, lovers and spouses: Intimacy in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41-57.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 *Journal of Family Issues*,

- 19(2), 140-163.
- Hover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287-297.
- Jacobs, J. B. (1991). Virginia Satir's triad theory for couples therapy. In B. J. Brothers (Ed.). *Virginia Satir: Foundational ideas*. (pp. 43-58). New York: The Haworth Press.
- Kelly, J. B. (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8), 963-973.
- Klemer, R. H. (1971). Self-esteem and college dating experience as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terial happines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83-187.
- Larson, J. H., Taggart-Reedy, M., & Wilson, S. M. (2001). The effects of perceived dysfunctional family-of-origin rules on the dating relationships of young adul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4, 489-511.
- Lim, M-C., & Jennings, G. H. (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aslow, A.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genberg and R.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Basic Books.
- Samet, N., & Kelly, E. W. (1987). The relationship of steady dating to self-esteem and sex role identity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22, 231-245.
-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199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1991).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Sippola, L. K. (1999). Getting to know the "othe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other-sex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07-418.
- Sternberg, K. J.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3), 237-246.
- Wilcoxon, S. A., & Hovestadt, A. J. (1985). Perceived similarity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dyadic adjustment: A comparison across year of marriage. *Family Therapy*, 12, 165-174.

(2005년 11월 28일 접수, 2006년 1월 11일 채택)